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29권 제4호, 2022, pp.105~150.

1인 가구 노동자의 생산-재생산 활동에 대한 사례분석: 개인화된 사회의 자기중심적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에 관한 시론적 탐색*

김 수 영** · 박 준 혁*** · 권 하 늬****

요 약

본 연구는 혼자 사는 비혼 노동자들의 일-생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개인화된 사회에서 생산과 재생산 메커니즘이 어떤 원동력에 의해 작동하며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재생산 활동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인화가 심화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족의 생계부양과 돌봄 의무가 생산-재생산 활동의 주요 동인이 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혼자 사는 비혼 노동자 21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가족이 없는 1인 가구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맥락은 무엇이며, 가족 돌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들의 재생산 활동은 어떤 활동들로 구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가족을 동력으로 해왔던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 활동은 후기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활동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포착했다. 면접참여자에게 노동은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한 수단이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실현하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재생산의 의미도 다음 세대 노동자를 양육하거나 육체적 노동력을 복구하는 돌봄·가사 활동보다는, 노동자 개인의 자기 계발과 자기힐링을 통해 심리적 자아를 재생하는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노동자들의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생산-자기재생산 활동의 특징을 포착한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개인화된 사회의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에 관한 탐색적 시도로 향후 다양한 사회집단의 사례분석과 이론적 논쟁을 통해 논의가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1인 가구, 신자유주의, 노동, 가족, 통치성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창의선도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주저자 및 교신저자 (bethany@snu.ac.kr)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공동저자 (pjoon94@snu.ac.kr)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공동저자 (gksml1205@gmail.com)

1. 문제제기

최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56.6%에 육박했고,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40%를 넘어섰다(Eurostat, 2019). 혼자 사는 사람들의 증가는 가족 중심성(family centeredness)이 사회문화적 특성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포착된다(Chang, 2014: 3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6)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약 40.1%를 넘어서면서, 1인 가구가 가장 전형적인 가구유형으로 부상했다. 일찍이 Beck과 Beck-Gernsheim(2002)이 개인화된 삶(individualised life)이 세계적 현상이 될 것이라 예견했던 것처럼, 과거 소수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국경과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보편적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하지만 급진적 변화 탓에 한국에서 혼자 사는 생활양식에 대한 이론 고찰이나 정책 비전 제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다음 3가지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관점 측면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상화되는 경향이 강했다. 보통 가구(family or household)라는 용어는 출산·양육을 수행하는 부부+자녀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와 대비되는 '1인 가구'는 정상가족에 비해 무언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집단으로 문제시되어왔다. 일례로, 청년 1인 가구는 개인주의 확산이나 불안정한 진로로 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로 묘사되어 왔고(정순희 & 임은정, 2014; 강은택 외, 2016), 독거노인은 빈곤, 고령화, 가족단절의 결과로 해석되었다(송유진, 2007; 정경희, 2013). 사회문제의 대상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혼자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들의 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현상 중심적 조사가 많은 편이었다. 기존 연구는 인구조사를 통해 1인 가구 집단의 추이와 규모를 개괄하는 양적 통계분석이 주를 이루어왔고(정경희 외, 2012; 김석호 외, 2018; 김형균, 2019), 소수로 존재하는 질적 연구들도 청년, 노인, 여성, 중고령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의 단면을 탐색하는 경향이 있었다(정순둘 & 임효연, 2010; 정순희 & 임은정, 2014; 김혜정, 2015).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들 역시 사회 속에서 여러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단기적 실태 파악에 치중한 방식으로는 이들의 입체적 생활 양태를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정책제언 측면에서는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즉흥적 대응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급이나, 정서적으로 외로운 1인 가구를 위한 우울증 심리상담 및 고독사 방지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화가 심화된 현대사회에서 혼자 사는 삶은 단지 빈곤한 사람이나 우울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구조이자 현상과 물려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정책은 취약

한 개인을 위한 선별적 지원을 넘어서 더욱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의 개인화된 사회 자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향후 미래사회에서 보편화될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로 간주하고 이들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혼자 사는 노동자들의 생산(production)과 재생산(reproduction)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재생산 메커니즘의 구심점은 가족이었다. 노동자가 일하는 일차적 목적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데 있었으며, 가정은 가사, 출산, 양육을 통해 노동력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Lewis, 1992; Hobson, 2002). 하지만 후기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체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1인 가구, LAT족(Living Apart Together), 동거가 급증하기 시작했다(Snell, 2017). 전통적 가족이라는 구심점이 해체된 상황에서, 개인들의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기존 1인 가구 담론들은 재생산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문제화하는 데에 주로 몰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의 영역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생산-재생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을 가족을 연상시키는 '1인 가구'로 표현하면서, 은연중에 이들이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정상가족'과 달리 출산·양육과 같은 재생산을 하지 않는 점이 부각 되거나, 비경제적 측면에서 이들의 열악한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망이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다(김연옥 2016; Coontz, 1992; Snell, 2017; Kim & Yoo, 2021).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의 생산 활동, 즉 노동보다는 혼술·혼밥 문화처럼 1인 가구의 소비행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유현정 외 2017; 하지경 & 이성림, 2017; Klinenberg, 2013). 혼자 사는 사람들의 노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빈곤청년처럼 취약한 1인 가구 집단의 노동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의 노동은 빈곤과 맞물려 회자되면서 이들의 노동은 빈곤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노동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정경희, 2013). 혼자 사는 청년의 노동에 관한 연구들 역시 청년 1인 가구의 노동이 프리터족, 아르바이트, 불안정 노동과 같이 생계를 위해 할 수밖에 없는 노동으로 묘사되어왔다(정순희 & 임은정, 2014; 이승윤 외, 2017; Inui, 2005).

그러나 대다수의 혼자 사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노동을 하며 활발히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적 주체이다. 실제 총 3,07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86.2%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 서울연구원, 2022). 따라서 독거노인,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빈곤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외로움에 초점을 맞춘 연구만으로는 1인 가구 대다수에 해당하는 혼자 살며 일하는 비수급 노동자들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1인 가구(one person household)라는 '가족'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혼자 사는 노동자(workers living alone)라는 '노동'의 관점에서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인 가구 노동자에게 노동의 의미는 가족구성원으로서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논의에서 보듯이, 사회과학연구에서 노동은 주로 가족의 맥락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Beneria, 1979; Coontz, 1992; Lewis, 1992; Esping-Andersen, 1999). 기존의 근대적 노동이론들은 은연중에 가족과 노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대비 영역이 희박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생산과 재생산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동기에 대한 질문이다. 보통 가장, 생계부양자와 같은 역할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과 가족부양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왔다. 그렇다면 가족의 부양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재생산 활동에 대한 질문이다. 근대 사회에서 노동과 가족이 떼려야 뗄 수 없지만, 무엇보다 재생산과 가족 구성은 더욱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출산, 양육, 가사와 같은 재생산 활동은 가족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족을 구성하지 않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재생산은 무엇을 의미하며, 재생산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혼자 사는 노동자 2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혼자 사는 노동자들의 생산과 재생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가족 중심의 생산과 재생산 이론을 보완하고, 미래 개인화된 사회에 적합한 생산-재생산 이론과 사회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 중심 생산-재생산 메커니즘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은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노동자가 일하는 일차 목적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데 있었으며, 가정은 가사, 출산, 양육을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Lewis, 1992; Hobson, 2002). 실제 서구사회를 시작으로 보편화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이 가족과 짝을 이루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음을 시사한다. 노동을 통해 얻는 생활임금(living wage)은 주로 노동자 개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측정됐다는 점에서 가족임금(family wage)이라는 용어가 개념화되기도 했다(Barrett & McIntosh, 1980: 51; Land, 1980; Fraser, 1994).

가족체계(family system)와 근대 자본주의의 연결고리를 진단한 Pfau-Effinger(2004: 378)의 표현을 빌리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등장은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노동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형태의 노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생계부양자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다. 가사노동에서도 성별의 구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가족구성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농경사회는 가족 경제 모델(family economy model)로 특징지어졌다(Pfau-Effinger, 2004: 384). 하지만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생산공간으로서의 작업장(workplace)과 생활공간으로서의 집(home)이 분리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생계부양자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Beck, 1992: 104; Hobson, 2002: 26).

노동과 가사에 있어서 젠더 역할이 확립된 것도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이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 가장은 산업구성단위(industrial unit)로서 노동력을 투입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여성은 가내구성단위(domestic unit)로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Seccombe, 1974: 6; Lewis, 1992: 163). 산업화 초기 노동운동의 목적을 "여성과 자녀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라고 규정했던 영국의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선언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Boston, 1980: 16), 노동자의 노동목적은 가계 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생계부양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남성 노동자는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남편'으로, 사적 영역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해내는 여성은 '좋은 어머니'이자 '좋은 아내'로 이미지화되며, 가족 중심의 생산과 재생산 체계가 더욱 견고해졌다(Seccombe, 1986: 58).

이처럼 근대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 체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구축되면서 개별 노동자의 생애주기(life cycle)도 가족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근대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생애주기는 노동시장의 산업역군이 되기 위한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학령기를 지나, 구직과 취업기, 고용기, 그리고 은퇴기로 구성되는데(Kohli, 2007: 258) 이 같은 개별 노동자의 생애주기는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의 맥락에서 표준화되어 왔다(Lynn, 1974; Gutmann, 1979; Rosenfeld, 1980). 다시 말해, 학령기는 부모가 자녀를 노동시장에서 매력 있는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기간이며, 취업은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기 위한 관문이자 요건으

로 인식된다. 또한, 2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에 걸친 고용기는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하는 가족 부양과 가족구성원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다(Rexroat & Shehan, 1987: 738~739; Horrell & Humphries, 1997: 33~34). 은퇴기는 사회제도로 퇴직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가족 차원에서는 자녀의 결혼 및 분가와 맞물려 시기가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이처럼 인간의 생애주기는 노동과 가족생활의 맥락에서 표준화된 삶의 양태를 제시해왔으며, 그 토대에서 근대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의 메커니즘이 구동됐다.

가족이 생산과 재생산 체계의 핵심이 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복지국가의 사회정책도 이러한 가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했다(Esping-Andersen, 1999: 83). 먼저 사회보험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남성 산업노동자를 실업, 질병, 노령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Rimlinger, 1971; Lewis, 1992; Fleckenstein, 2011). 재생산 영역에서는 여성들의 돌봄(maternal caring)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수당과 출산휴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남성 생계부양자가 사망한 기혼 여성들에게는 이른바 과부연금(widow's pension)을 통한 복지혜택을 지급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돌봄자 역할을 해온 여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졌다(van Kersbergen, 1999; Bonoli, 2007). 이처럼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남성이 임금노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남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방식이 보편적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었다. 이러한 가족 중심의 생산과 재생산 체계는 사회정책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형태와 인구변화

이른바 탈산업화로 특징지어지는 후기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 사회구조에 상당한 변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경제적으로 산업경제의 근간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면서 노동시장에도 구조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완전고용을 지향하며 전후 복지국가를 뒷받침해오던 케인즈주의가 이념적 정당성을 잃기 시작하고, 1960년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가 정책 기조로 부상하면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비정형 노동 형태가 급증하게 되었다(Osborne & Gaebler, 1992).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전기 근대 사회의 가족 중심적 경제구조의 전제가 되었던 가족 임금, 완전고용, 종신고용과 같은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노동 생애주기가 더는 보장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하기도 했다(Standing, 1997: 17~18; Bonoli, 2007: 498~499).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도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다. 과거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남성 생계부양자가 제공하는 생

계비에 의존하며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업주부 역할을 요구받았다면, 이제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해 직접 생산 활동을 하면서 경제주체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게 되었다(Lesthaeghe, 2010: 223). 전통적 가족 형태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났다. 18세기에서 20세기 전기 근대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대가족이 줄어들고 핵가족이 증가하는 시기였다면, 20세기 중후반 후기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는 동거가구, 1인 가구, 한부모 가구처럼 부모+자녀의 전통적 가족구성이 아닌 더욱 소규모화된 가족 형태가 증가하기 시작했다(Snell, 2017: 25).

인구학자들은 후기 근대 사회의 위와 같은 인구변화를 전기 자본주의 사회의 제1차 인구변동(first demographic transition: FDT)과 대비해, 제2차 인구변동(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DT)으로 명명했다(van de Kaa, 1987; Lesthaeghe, 2010, 2014). 제2차 인구변동 이론은 Lesthaeghe와 van de Kaa가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가족해체와 비혼 가구 증가로 표상되는 가족 형태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인구학적 전환임을 발견한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근대 사회의 인구 구조를 설명해온 제1차 인구변동 이론은 주로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낮아지면서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와 인구절벽이 발생하는 제로인구성장률(zero population growth)을 인구변화의 종착점으로 보고해왔다. 하지만 제2차 인구전환 현상에 주목한 인구학자들은 후기 근대 사회에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 규모의 양적 축소'만이 아니라, 결혼관의 변화, 가족관의 변화, 젠더의식의 변화로 인해 1인 가구, 동거, LAT(living apart together: 주거를 따로 하는 파트너십)와 같은 다양한 가구가 증가하면서 '인구 구성의 질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질적 변화는 부부+자녀 모델을 전제로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현재의 가족정책만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려운 거대한 인구 패러다임의 변환이라는 것이 제2차 인구변동 논의의 요지이다.

Lesthaeghe(2010)에 따르면, 제1차 인구변동은 산업화로 인해 경기가 호황기가 접어들면서 두드러졌던 인구변화로, 당시에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해 가족 구성원의 성별에 기초한 노동 분업이 가능했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기반 속에서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낮고, 혼인율은 높았으며, 초혼 연령이 낮아 핵가족이 증가했던 것이 제1차 인구전환의 특징으로 포착된다. 하지만 1960~70년대 후기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탈산업화와 경기불황으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사회문화적으로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실현이 중요한 욕구와 가치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Lesthaeghe는 이로 인해 인구학적으로도 전기 산업사회 때와 달리 점차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지고, 혼인율은 낮아지면서 1인 가구가 보편화되는 새로운 인구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3)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화 논의

사회이론가들은 이러한 인구전환을 개인화(individualis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왔다(Beck & Beck-Gernsheim, 1995, 2002; Bauman, 2000, 2001, 2003, 2005, Giddens, 1991; 1992). 사실 개인화 현상은 전통적 사회규범과 권위구조에 묶여있던 신분제가 깨지고, 개인의 능력과 선택으로 지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이념 아래 출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꾸준히 지속되어온 흐름이었다. 그러나 사회이론가들이 특히 주목한 지점은 제2차 인구변동으로 인한 후기 근대 사회의 개인화 심화 현상이다.

후기 근대의 개인화에 주목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Beck과 Beck-Gernsheim(1995, 2002)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개인화의 주된 배경으로 가족, 계급, 국가의 울타리를 약화시키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재편에 주목한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자유를 향한 지향이 개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후기 근대 사회가 생산하고 주입한 가치라고 지적한다. '주체적으로 사는 삶(living the life of their own)'이라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메시지는 사실상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뜻한다기보다 개별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각개 분투해야 하는 불안정한 삶을 뜻한다는 것이다. Beck과 Beck-Gernsheim(1995: 8)이 후기 근대의 개인화 현상을'노동시장 개인주의(labour market individualism)'로 요약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Beck과 Beck-Gernsheim(1995)은 노동시장만이 아니라 가족 영역에서도 개인이 결혼, 출산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 혼자 사는 삶을 택하는 자기중심적 개인주의(selfish individualism)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사회가 분자화될수록 사람들은 사랑과 친밀성을 갈망하지만, 이성과의 만남이 결혼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진다고 보았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이 여성에게 남성과 비견되는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자기 이익 중심의 성별 대립(self-interested gender antagonism)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Beck & Beck-Gernsheim, 2002: 54~55). 무엇보다 부부+자녀로 구성된 근대의 전형적 가족 모델이 유지되려면 생산과 재생산 활동에 대한 성별분업이 필수적인데,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여성이 가족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기록하는 가족의 전기(family biography)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전기(labour market biography)를 택하게 되면서 가족의 실패(family failure)는 필연적 수순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Beck(1992: 116)은 "시장사회(market society)의 결말은 인간이 한 개인으로만 살아가는 무자녀 사회(childless society)"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Bauman도 후기 근대 사회의 개인화가 갖는 부정적 측면에 주목한 학자이다. Bauman은『액

체근대(Liquid Modernity)』(2000), 『개인화된 사회(Individualized Society)』(2001), 『리퀴드 러브(Liquid Love)』(2003), 『리퀴드 라이프(Liquid Life)』(2005) 연작을 통해 노동시장, 정부와 복지국가, 가족과 사랑, 소비와 라이프스타일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개인화 현상에 주목했다. 이때 Bauman은 가족, 계급, 국가와 같은 단단한 사회제도와 규범에 근거했던 전기 근대를 고체 근대로 명명하고, 이에 반해 기존의 사회적 근간들이 결합력을 잃으면서 인간의 삶이 개별화되고 부유하게 되는 후기 근대를 액체 근대로 표현한다. Beck 부부와 마찬가지로 Bauman(2000: 57~59)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도래를 개인화 현상의 주된 구조적 배경으로 주목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기반을 뒤흔들면서,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생존에 몰두하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한다.

더욱 큰 문제는 유연성(fluidity)과 유동성(mobility)을 강조하는 액체 근대의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노동시장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적 사랑과 친밀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Bauman, 2003), 정치적 민주주의와 공론장을 위협하고 사회연대와 합의에 기반한 복지국가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Bauman, 2001). 특히 Bauman(1998)은 기존의 복지국가에서는 노동자의 계급 연대가 복지국가의 주요 발전요인이었던 데 반해, 최근 복지국가 정책에는 신자유주의적 소비주의(consumption) 기조가 유입되면서 정부는 시민들을 노동자-시민(worker-citizen)이 아닌 소비자-시민(consumer-citizen)으로 정체화하기 시작했으며, 개별 시민들의 맞춤형 선택과 만족도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들마저 개인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Giddens(1991, 1992) 역시 전통적 질서의 해체와 거대 서사의 종말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주목하면서, 그에 따른 결과로 파생된 개인화 현상을 비평해왔다.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전통적 행동 양식들이 폐기되면서 사람들은 전례 없는 자율성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How Shall I Live?)"와 같은 존재론적 고민을 하면서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Giddens, 1991: 14). Giddens(1991: 149)는 이처럼 끊임없는 성찰 과정을 통해 자기 삶의 역사(biography)를 스스로 써내려가야 하는 후기 근대 사회의 개인을 자급자족적 개인(self-sufficient individual)으로 명명한다. 그러나 주로 개인화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해왔던 Beck과 Bauman과 달리 Giddens는 개인화 현상 속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자 했다. 개인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기존의 전통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됨에 따라, 형식과 의무로 얽힌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동등한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를 맺을 수 있는 여지도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Giddens, 1992: 75). 이처럼 Giddens는 개인을 신자유주의적 구조와 압력에 휘둘리는 수동적 존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사회를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구성적 존재로 간주했다.

이처럼 Beck과 Beck-Gernsheim, Bauman, Giddens가 이끌어온 개인화 이론은 후기 근대 사회의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의 변화가 갖는 거시 구조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탁월한 분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대부분 시장과 가족의 변화에 대한 철학적 개념 정의와 현상 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로 이 같은 구조적 변화가 개별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미시적이고 실증적인 사례분석에는 다소 미흡한 편이었다.

4) 개인화된 사회의 미시적 동력: 신자유주의적 자아(The Neoliberal Self)의 실천

신자유주의의 거시적 구조가 개인의 미시적 삶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할 때 연결고리가 되는 개념이 바로 '자아·자기(self)'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사회이론가들이 개인화의 주요 특징으로 공통되게 언급하는 현상은 바로 자기의 부상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계급, 민족, 가족과 같은 사회제도가 수행해오던 역할이 자기에게 전가된다고 진단한다. 개인화 이론에서 자아 정체성(self identity), 자기 계발(self development), 자기 책임(self responsibility), 자급자족(self sufficiency), 자기 보호(self protection)와 같은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례로 Beck(2003: 274)은 개인화된 사회에서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보다 개인이 스스로를 경영하며 성장시키는 자기 계발(self development)이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노동자의 자기 계발은 중요한 화두가 아니었다. 노동자 대부분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개인의 역량보다 계급적 기반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노동자들에게도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한 숙련 형성은 중요한 덕목이었다. 하지만 Beck(2003)이 말하는 자기 계발은 단순히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기술을 연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화된 사회에서 자기 계발은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Beck, 2003: 274). 산업사회에서 미래의 생산 활동의 방향과 전망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은 주로 기업가의 몫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개인화가 진전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커리어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관념이 확산되면서, 개별 노동자들도 자신의 생산 활동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미래의 로드맵을 스스로 설정하는 자기 계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Beck, 2003: 275). 이런 맥락에서 Beck과 Beck-Gernsheim(2002: 42)은 기존의 프롤레타리아 문화나 부르주와 문화와 같은 계급 기반의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자신의 노력과 자기 계발에 몰두하는 자기문화(self culture)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곧 인생의 불운과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책

임도 개인에게 부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Bauman(2001)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현대사회를 자기책임(self responsibility)이 과잉된 피로사회라고 비판했다. 근대 사회에는 가족과 복지국가와 같이 개인의 실수와 실패를 보상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공적인 안전망이 와해되면서, 위험과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기의 강조와 책임 전가가 억압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개인들은 자아정체성, 자기 계발, 자기 관리와 같은 자기중심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추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화 이론은 개인화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억압을 분석하는 데 주로 주목해왔기에, 이를 개별 주체가 어떤 맥락으로 내면화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수행하진 못했다[1].

이때 통치성 학파의 논의들은 신자유주의의 거시적 구조가 개인의 미시적 삶과 어떻게 연결되며,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어떻게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실천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Burchell et al., 1991; Rose, 1996, 1998, 1999). 실제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 시대적 명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치경제적 기반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사회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통치성(governmentality)은 거칠게 말해 통치멘탈리티(govern/mentality)로, Foucault(1978)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Foucault는 지배 권력의 통치방식이 폭력, 구속, 감금과 같이 개별 주체를 억압하는 적나라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배체계가 지향하는 가치를 개별 주체들이 미덕이자 덕목으로 추구하도록 사회적 담론을 조성하거나, 인식과 멘탈리티를 조정하는 세련된 통치기술(the art of government)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았다(Foucault, 1978: 87). 통치성은 이처럼 개별 주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인식과 행동방식을 통솔(the conduct of the conduct)하는 힘을 뜻한다. 세련된 통치술로서의 통치성은 개인을 지배구조에 의해 억압받는 노예가 아니라,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유로운 주권자로 호명한다(Foucault, 1978: 102).

통치성 학파는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을 발전시켜 신자유주의 사회의 통치성(neoliberal governmentality)을 이론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대표적 통치성 학자인 Rose(1998)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체제 유지의 방식으로 개인을 '기업가로서의 자아(the entrepreneur of the self, entreprenerial self)'로 주체화하고, 이를 내면화하도록 다양한 실천기술을 통해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여기서 기업가로서의 자아는 기

1) Giddens(1992)는 개인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주체성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순응적으로 내면화하고 재생산하는 측면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억압을 거슬러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삶을 구성하려는 저항적이고 성찰적인 개인을 강조하려는 취지가 강했다.

업가처럼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규율하며, 자아라는 인적 자원을 개발해 성과를 내는 개인을 지칭한다. 즉,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사업장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가장 미시적 자아정체성에까지 기업가적 실천모델을 침투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 적합한 신자유주의적인 자아들을 발명(inventing our selves)하고 있다는 것이다(Rose, 1998). Rose(1996)는 스스로의 삶을 경영하며 자유와 모험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자아가 노동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실천모델로 작동하면서 신자유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관한 사례연구들은 정부 복지정책, 노동시장,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이 기업가적 자아로 호명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실천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모습을 드러내 왔다(ex. Brady, 2014; Cho, 2009; Mitchell, 2006; Wacquant, 2009).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자아가 공적인 생산영역과 사적인 재생산 영역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실천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듯 제2차 인구변동, 개인화, 신자유주의적 자아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개인화된 사회에서 자기(self)가 새로운 산업구성단위(industrial unit)이자 가내구성단위(domestic unit)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후기 근대의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그간 가족을 중심으로 작동해왔던 생산-재생산 체계도 자기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제2차 인구변동, 개인화 이론, 통치성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후기 근대의 개인화된 사회에서 생산-재생산 활동이 어떻게 작동하며 유지되는지를, 제2차 인구변동 이후 주된 인구형태로 부상한 1인 가구 노동자들에 관한 실증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비혼 1인 가구 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이 희석된 개인화된 사회에서 생산과 재생산 활동의 지속적 동력이 어떻게 확보되고 유지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따라서 생산-재생산 활동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주요 생산 연령대인 20~50대이자, 현재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1인 가구 노동자들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1인 가구 질적 연구들이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던 노인 1인 가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를 수급하는 빈곤층 1인 가구는 제외되었다. 그 외의 기준에 대해서는 성별, 나이, 소득 수준, 직종, 일한 기간, 혼자 산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한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질적 연구는 수치적·확률적 일반화를 뜻하는 통계적 일반화(analytical generalisation)가 아니라, 연구문제와 대상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존재론적·인식론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분석적 일반화(analytical generalisation)를 추구한다(Chenail, 2010; Polit & Beck, 2010). 따라서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섭외할 때도 다양한 인구학적 집단의 비중을 비슷하게 맞추기보다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들을 의도적으로 표집을 하는 목적적 샘플링(purposeful sampling)도 허용된다(Braun & Clarke, 2006). 그러나 본 연구는 1인 가구 비혼 노동자의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적 시도이기에, 특정한 성별, 나이, 소득 집단에 집중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인구학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고자 노력했다. 질적 연구에서 다양성을 고려한 표본 선택은 케이스들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참여자들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세부적 차이들을 포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Ritchie, Lewis & Elam, 2003). 연구참여자는 눈덩이 표집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1명이 참여했다.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는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13명, 40·50대는 8명, 성별은 여성이 12명, 남성은 9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혼자 산 기간은 5년 이하가 6명, 5~15년이 9명, 15년 초과가 6명이었으며, 일한 기간은 5년 이하가 8명, 5~15년이 8명, 15년 초과가 5명이었다. 소득 분포는 0~99만 원이 1명, 100~199만 원이 2명, 200~299만 원이 4명, 300~399만 원이 4명, 400~499만 원이 1명, 500~599만 원이 4명, 600만 원 이상이 5명이고[2], 직종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외에도 일반기업 직장인과 전문직 등 다양했다. 본 연구는 저자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받았으며,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 섭외된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안내하며 녹취 및 전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거쳤다. 심층면접은 1시간 반 내외로 진행되었고, 개인의 일과 생활에 관해 묻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작성하여 면접에 활용했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ID	나이	성별	직업	월 소득	일한 기간	혼자 산 기간
참여자1	30세(1992)	남	일반기업/회계사	650	4년	1.5년
참여자2	33세(1989)	여	프리랜서/패션디자인	350	9년	9년
참여자3	26세(1996)	여	프리랜서/IT	200	0.5년	7년
참여자4	39세(1983)	여	프리랜서/과외	350	12년	10년
참여자5	41세(1981)	남	IT기업/디자인	700	12년	20년
참여자6	41세(1981)	여	외국계기업/음료	500	13년	4년
참여자7	39세(1983)	남	프리랜서/디자인	500	7.5년	20년
참여자8	43세(1979)	여	외국계기업/자동차	500	9년	23년
참여자9	42세(1980)	여	대기업	800	16년	22년

2) 참고로 2021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 1,000원이다.

참여자10	42세(1980)	여	대기업/방송	550	17년	15년
참여자11	29세(1993)	여	교육기업	220	3년	8년
참여자12	30세(1992)	남	프리랜서/학원, 과외	350	6년	8년
참여자13	30세(1992)	여	노무사	400	3년	5년
참여자14	30세(1992)	남	시민단체	210	3년	1년
참여자15	47세(1975)	남	의료기기 판매 기업	330	21년	15년
참여자16	26세(1996)	남	프리랜서/디자인	100	2년	5년
참여자17	29세(1993)	여	프리랜서/PD	170	5년	10년
참여자18	27세(1995)	여	화장품 판매기업	250	3년	3년
참여자19	53세(1969)	남	중소기업 대표	750	25년	25년
참여자20	49세(1973)	여	고위공무원	750	23년	14년
참여자21	38세(1984)	남	자영업(코로나 휴업)	0	12년	17년

심층 인터뷰에 대한 분석은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활용했다. 주제분석법은 다른 질적 연구방법론과 마찬가지로 면접참여자들의 구체적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특정 현상에 대한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그러나 일정한 전제나 분석 틀 없이 면접자료를 통해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근거이론과 달리, 주제분석법은 연구자가 일정한 주제(theme)를 염두에 두고 수집된 면접자료를 분류하고 해석하고자 한다(김인숙, 2016). 본 연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노동과 삶을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기존의 가족 중심적 생산-재생산 메커니즘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문제의식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재생산 개념을 중심 주제로 하여 면접자료를 분석하는 주제분석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수집한 질적 자료들은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6단계 주제분석법 절차에 따라 수행했다. ① 자료에 친숙해지기; ② 자료 코딩하기; ③ 주제별로 코딩한 자료를 분류하기; ④ 주제들을 검토·확인하기; ⑤ 주제별로 핵심내용과 제목 정하기; ⑥ 주제에 따라 글쓰기가 그것이다. 다음은 면접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혼자 사는 노동자들의 생산과 재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4. 연구결과

1)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산 메커니즘: 자기생산(self production)

(1)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가족 구성보다 일자리를 우선시하게 됨

본 연구에 참여한 혼자 사는 노동자들에게서 공통으로 관찰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일을 삶에서 최우선의 과업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36명의 1인 가구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이슈에 대해 인터뷰를 수행한 Wilkinson과 동료들(2017: 652)도 인터뷰 참여

자들이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매우 몰입(commitment)되어 있으며, “일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적 닻(primary anchor)으로 여긴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일에 대한 몰입은 단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다. 완전고용이 가능했던 산업사회의 호황기에는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가정을 형성하는 표준화된 삶의 과업을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었기에, 노동시장 입직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입직 이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수순이었다(Beck, 2000). 그러나 후기 근대로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완전고용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써 개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선시되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시장 진입 연령기인 20~30대 청년들이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 자녀 출산 등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현상도 점차 증가했다(Bonoli, 2007).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도 구직활동, 생계유지 등의 생존 문제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가족 형성을 위한 결혼이나 출산 등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현재 20대 중반인 참여자3은 대학원에서 통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빅데이터 스타트업에 취직을 했지만, 향후 일자리를 위해서는 더 큰 조직으로 이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대기업을 목표로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구직이 급선무인 그녀는 과거에는 20대 중반 직장인 여성에게 기대되는 “연애나 결혼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30대 남성인 참여자12도 과외 강사와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며 미래 진로를 고민하느라 “결혼은 거의 포기”한 채 살아간다고 언급했다. Beck(2000: 70)은 과거 취업과 결혼이라는 표준화된 삶이 가능했던 시기를 포드주의 레짐(fordist regime)으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개인에게 집중된 현대 사회를 위험 레짐(risk regime)으로 정의하면서, 완전고용과 종신고용이라는 정해진 루트가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자기 전기(do-it-yourself biography)를 써 내려가야 하는 절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Guichard(2009)는 노동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자기 커리어를 디자인해야 하는 상황을 자기 구성(self construc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는데, 이렇게 자기 커리어를 구성해야 하는 과업에 매진하다 보면 결혼을 통한 가족 구성(family construction)이라는 전통적 과업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 일단 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당장 혼자 먹고사는 거에만 갇혀 있는 거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3)

> 나이 들어 집으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집안 사정도 생기다 보니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해야 하다 보니, 결혼은 포기하는 거지요. ‘뭐포 세대’ 이런 말을 쓸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진짜 결혼 포기인 것 같아요. (참여자12)

>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결혼은 되게 아득하더라고요. 앞으로 일자리는 더 불안정해질 텐데 서로한테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수 있을까. 제가 애를 낳으면 애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그거는 자신이 없고. (참여자16)

(2) 일 중심의 삶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자아의 미시적 실천

①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함

그러나 면접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결혼이나 가족 형성보다 노동에 전념하는 이유를 단지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비자발적인 결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통치성 학파가 지적했듯, 신자유주의 메커니즘에서 개인은 구조에 억압적으로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체(choosing self)로 호명된다(Rose, 1999: 42). 신자유주의적 개인화는 현대인들이 전통적 가족 형성과 헌신보다는 자신의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한다. 이에 따라 개별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의미에도 큰 전환이 일어났다. 가족이 중심이 된 산업사회에서 노동의 일차적 목적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면,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일의 또 다른 핵심 목적으로 '자아실현'이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Esser, 2005). 실제 현재 외국계 기업에 종사하는 40대 여성인 참여자8은 소위 결혼 적령기로 불리는 20~30대에도 결혼에는 관심이 없었고, 일을 통한 "자기 커리어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 굳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하나 그런 거에 니즈가 별로 없어요. 그냥 좀 자기 계발이나 커리어 개발이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있었으면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냥 개인, 저 자신을 위한 성취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참여자8)

Giddens(1991)는 개인화된 사회의 주요 특징으로 모든 삶의 준거점, 동기, 판단 근거가 가족과 같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내부로 향하는 자기 준거 시스템(self referential system)을 꼽는다. 다시 말해, 개인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제일 충성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신념 체계를 만들며,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개인의 내면에서 설정된다는 것이다(Giddens, 1991: 80). 위의 참여자8만이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가 '나의 성취와 재미'를 노동하는 1순위 이유로 꼽았다. 이처럼 내부에서 생성되는 자아실현이라는 가치는 가족의 생계부양과 같은 외부의 의무나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1인 가구 노동자들이 지속해서 일을 찾고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내부의 추동력이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개인화가 제도적으로 조직화되는 현상을 분석한 Honneth(2004: 474)는 후기 근대 자본주의는 자아실현을 향한 욕구를 경제적 원동력으로 삼는 방식으로 유지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자아실

현을 표방하는 개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이, 성별, 소득 수준이 다양한 21명의 연구참여자 중 자기 성취나 보람이 아니라 생계가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거의 압도적 다수는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참여자1)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기업에 다니는 참여자19는 일하며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일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이 계속해서 일에 몰입하게 되는 동기라고 말했다. 이는 적어도 본 연구에 참여한 비혼 1인 가구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의미가 더는 생계유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 돈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에서 좀 더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작은 거라도 이뤘을 때 느꼈던 성취감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일을 중요시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계속 성취감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참여자1)

> 당신들보다 내가 절대 일을 적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많이 하고 더 늦은 시간까지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으로 (참여자20)

> 내가 맡은 일에 좀 집중하고 여기서 좀 성과를 내고 일이 잘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재미있다 행복하다 이런 걸 느껴요. (참여자9)

> 일단은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맨을 일할 때는 뭔가 해서 갖다 팔았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월급이 더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뭔가 성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참여자19)

물론 후기 근대 사회에서만 노동이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아니다. 일례로 Weber(1905/1978)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 근대 초기 서구사회에서도 노동이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신이 규정한 삶의 목적임과 동시에 개인의 존재적 가치를 발현하는 통로로 인식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후기 근대 사회에서 노동이 자아실현과 성취의 수단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아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성장을 추구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노동에 대한 헌신은 과거의 종교 문화적 소명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만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가능성 유무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더라도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직

이나 취직을 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예를 들어, 참여자6은 외국계 기업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도 곧 설립될 또 다른 외국계 기업으로의 이직을 앞두고 있었다. 현재 직장에서의 일이 익숙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직을 결심했다. 16년째 한 대기업에 다녀온 참여자9도 회사의 “네임밸류보다 자신에게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직장”을 미래 이직할 일자리로 꿈꾸고 있었다.

> 그쪽 일이 좀 더 생산적이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여기는 똑같이 계속 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지만 그쪽은 뭔가 프로젝트도 많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해보고 싶었어요. (참여자6)

>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내가 계속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그게 1순위로 바뀌어서 앞으로 이직할 때 ‘이것이 내 길이다’라고 어디를 간다고 치면 그 회사가 아무리 작든 네임 밸류가 없든 그런 건 별로 신경이 안 쓰일 것 같아요. (참여자9)

사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이직은 가계의 안정감을 흔들 수 있기에 매우 커다란 모험으로 인식되었던 일이다. 물론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이직은 상당한 모험이었다. 하지만 그 부담을 홀로 지면 되기 때문에 이직에 훨씬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참여자9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적성, 취향, 흥미, 여건에 맞는 직장을 찾아 이직하거나 직업을 바꾸길 원했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직장을 옮겨 다니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걸림돌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교롭게도 혼자 사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환경에 적합한 ‘유연성을 가진 주체’가 된다. Beck(1992: 116)은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사회는 결국 자녀 없이 혼자 살아가는 무자녀사회라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통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쉽게 조응하는 1인 가구 노동자들의 실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일을 중심으로 자신의 시공간을 구성함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족 구성보다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일을 통해 자기실현과 자기성과를 추구하는 모습은 개인이 불안정하고 경쟁적인 신자유주의 시장구조에 조응하여 자신의 신념 체계를 구성하는 신자유주의적 멘탈리티를 잘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내면화한 개인은 자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인식만이 아니라 행동양식을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조정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은 더욱 생산성이 높은 삶을 위해 자신이 생활하는 시공간을 일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Giddens(1991: 79; 85)는 현대사회

에서 개인이 직장을 얻고, 거주지를 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삶의 전환점들은 모두 자기실현(self actualisation)의 욕구에 의해 추동되며,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택도 자신의 행동을 돕고 촉진하는 제도적 세팅(institutional setting)을 갖추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Giddens의 해석은 특히 혼자 사는 개인들에게 가장 적나라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먼저 공간적인 세팅을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세팅했다. 즉, 연구참여자 대다수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 이는 자신이 하는 일의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

> 생활에서 업무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고. 집이 회사 근처에 있는 게 제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참여자1)

> 전 항상 집이 직장에 가까이 있었어요. 출퇴근으로 낭비하는 게 제일 싫어서. 항상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일하는 곳과 가까운 데서 집을 구해서 있었어요. (참여자19)

> 직장에서 집이 차로 15분 거리예요. 그래서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직장이 바뀔 때마다 그 근처로 웬만하면 다 이사를 했었던 경우라서, 혼자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제가 자유로운 상황일 때는 항상 직장 근처로 항상 잡는 것 같아요. (참여자5)

이렇게 직장과 인접한 곳에 집을 구하고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주거의 입지를 선택할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학군,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또한, 모든 가족 구성원을 수용하기 위해 큰 평수의 집이 필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도시 외곽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발생한다. 반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 외의 다른 사안들은 주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참여자5의 말처럼, 결혼하면 아파트를 구해야 해서 서울 도심에 살 수 있을지 장담 못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현재는 도심의 직장 근처에 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집이 직장 근처에 있는 것이 출퇴근 시간을 아끼고 불필요한 체력 소진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보통 집(house)은 가족성(familiarity)을 갖는 정서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Buttimer, 1980; Seamon, 2015). 그러나 '직주근접'을 거주지의 일차 선택요건으로 꼽는 혼자 사는 노동자에게 집은 일을 위해 필요한 부차적이며, 기능적인 공간으로 인식된다. 보통 산업사회에서 공간은 일하는 사업장(workplace)으로서의 공적 공간과 휴식을 취하는 사적 공간인 가정(home)으로 양분되어 인식되었다. 그러나 일터와 가정이라는 이분화된 공간인식은 기존의 가족 중심의 산업자본주의 사회환경에 부합한 것이다. 혼자 사는 노동자들도 노동을 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들에게 집은 다른 가구구성원이 기다리는 가정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노동자에게 집은 안락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이미지화되는 데 비해, 혼자 사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집은 “퇴근하고 돌아와서 잠만 자는 곳(참여자1)”, “제 물건을 놔두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참여자3)”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1인 가구 노동자들에게 시간 또한 노동시간에 쉽게 흡수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정이 있는 노동자와 달리 가사나 돌봄 부담이 적기에 자기 자신에게 소비하는 시간이 많고, 노동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해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석호 외, 2018; 노혜진, 2018). 실제로 IT기업 디자이너인 참여자5와 회계사인 참여자1은 꼭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도 자진해서 추가 근무를 해왔다. 심지어 참여자5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일을 하면서, 평소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투자하고 있었다. 가족이 있는 노동자에게 가족은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지만, 혼자 사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외부적 브레이크가 적어서 일에 몰입하는 경향이 심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 야근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저는 평소에도 스스로 그냥 일을 좀 하는 편이에요. 한 두세 시간 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집인데, 지금도 일을 하고 있었고 할 거 없으면 일을 하는 경우도 좀 생기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쉬고 있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일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5)

> 사실 야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참여자1)

연구참여자들에게 미래의 시간도 커리어를 쌓기 위한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Rose(1998)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개별 노동자들을 자신의 생산 활동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미래의 로드맵을 스스로 설정하는 기업가적 자아로 호명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에게 미래 계획을 물었을 때 모든 참여자가 망설임 없이 자기 커리어를 위한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직장을 병행하면서 최근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한 참여자2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유명 패션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는 꿈을 세우고 있었고, 외국계 맥주 회사로 이직을 앞둔 40대 참여자6은 현재의 업을 퇴직 후까지 이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 제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자금이 얼마 없어서 소품들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패션을 하

> 고 싶거든요. 그래서 패션 브랜드로 키우는 게 목표인데요. 하다 보니 직장인으로서는 마케팅이나 경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참여자2)

> 이직한 곳에서 잘 되면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10년 정도 일을 할 수 있진 않을까 해요. 그러면 50대가 되니까 그때 되면 맥주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맥주와 관련된 다른 길도 있잖아요. 이 회사를 크게 하면서 저도 회사에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참여자6)

그러나 경제적 생산 활동에 관해서 기업가적 자아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면접참여자들의 미래 로드맵에서 결혼이나 가족구성, 인간관계의 친밀성 형성과 같은 계획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40대 여성인 참여자6는 20~30대에는 직업전선에서 투신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40대에 접어들면서는 소위 말하는 결혼 적령기와 더 멀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외 연구참여자들도 대부분 커리어 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가족형성과 결혼은 매우 추상적이고 흐릿한 가능성으로 남겨 두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같은 난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면서도, 가족형성과 결혼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과 같이 운명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에서 기업가적 자아로서 경제 생산성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기획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능숙했지만, 친밀한 관계, 가족 결혼, 자녀 출산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심지어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아닌지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할"(참여자1) 여유나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 저는 '결혼 절대 안 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당장 내일이라도 괜찮은 사람 있으면 뭐… 운명이면 만나는데 안 만나지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혼자 사는 거고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찾으려고도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참여자6)

>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 하고 싶고. 그전에는 그렇게… (참여자5)

>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있을 텐데…. 그동안 가족을 꾸려서 자식을 몇 명 낳고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1)

③ 일을 자기정체성과 동일시하게 됨

이처럼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실천으로 비혼 노동자의 삶을 선택한 면접참여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내면화한다. 면접참여자들에게 생산 활동이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군분투하는 행동만은 아니다. 자신의 자아실현과 성과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일 중심으로 기획해가는 과정에서 노동은 결국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화되어 간다. 전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특정 신분이나 혈통의 일원으로 부여되는 것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된다(Bauman, 2001). 특히 임금노동이 생활의 중심이자 생활시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Ashforth et al., 2000; Golden, 2001; Johnston & Swanson, 2007). McKenna(1997: 14)의 표현처럼, “자신의 일을 빼놓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일을 최우선 과업으로 두고 몰두하며, 일 중심으로 자기 생활을 구성하는 혼자 사는 노동자들에게 일은 단지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하는 한 요소가 아니라 일 자체가 곧 자기 정체성이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래처럼 일을 “나의 정체성”(참여자2)이자, “내 삶의 형식”(참여자17)이며, “내 전체의 인생”(참여자7)으로 정의한 연구참여자들의 말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인 참여자2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디자인이 곧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고 이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답했다. 디자인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참여자7도 디자인을 “자기 인생이자 존재”와 동일시할 만큼 큰 의미를 부여했다.

> 일이란 게 나의 정체성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하는 작업, 일하면서 내가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런 거 같아요. 제가 패션 디자인 쪽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거나 풀어내지 않으면 막 뭔가 억눌림을 당한다든지, 나 자신이 약간 죽는 듯한. 그게 정체성인 거잖아요. (참여자2)

> 총체적으로 이 일이랑 나는 이제 떼려야 뗄 수가 없겠구나. 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제 삶의 형식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의 주제를 잡고 인터뷰이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걸 깨달을 때도 있고,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돼서 제가 하는 일의 정당성, 가치를 확인받아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참여자17)

> 저는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선택했고 이것이 제 전체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저는 디자인을 노동이라기보다는 저라는 하나의 그냥 존재 자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참여자7)

이처럼, “일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참여자2), “일이 존재 자체가 되어”(참여자7), “일과 자신을 떼려야 뗄 수 없게”(참여자17)된 연구참여자들에게 노동은 단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생산하는 ‘자기생산(self production)’의 과정이 된다. 즉, 노동을 멈추면 자기의 존재도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노동을 자신을 생산하고 실현하는 활동으로 의미화하는 현상은 부양할 가족이 없는 개인화된 사회에서도 어떻게 노동자들이 생계유지 목적 이상으로 노동에 계속해서 투신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

(3) 자기생산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기업문화

물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지점은 개별 노동자들의 위와 같은 미시적 실천과 인식이 겉보기에는 스스로 선택한 삶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구조적으로 뒷받침되었을 때 더욱 공고해진다는 점이다. 혼자 살며 일하는 사람들의 일에 대한 몰입과 일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가족과 결혼에 관한 상대적 무관심은 외부의 신자유주의적 조직문화에 의해 유지되며 강화되는 측면도 포착되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자아의 실천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근대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후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평생직장 개념은 폐기되었으며, 고용불안이 일상이 되었다(Sennett, 1998). 이는 앞서 살펴본 바처럼 노동시장 내 생존이 최우선 과업이 되어,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는 노동시장의 직종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다.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회계사의 길을 택한 참여자1의 경험은 그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최근에는 모든 직종에 신자유주의적 조직문화가 침투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금융계에 비해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성과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직종에 속한다. 실제로 참여자1은 안정적 직군으로 꼽히는 교사가 된 자기 친구들은 대부분 취업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기존의 전통적 생애주기에 따라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경향이 있지만, 커리어 경쟁이 심하고 성과를 중요시하는 회계사 조직에서는 혼자 사는 삶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유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참여자11도 직종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래 결혼에 관해 관심이 크지 않았던 참여자11은 유아용 교구를 제작하는 교육 관련 회사에 다니며, 교구 시연 과정에서 직장 동료의 자녀들을 자주 보게 되면서 결혼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게 되었다.

> 기본적으로 선생님 직업을 택한 친구들이 가치관 차이가 있을 거 같고,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의 사이클에서 오는 여유 같은 게 있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집 사고 이런 게 일반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곳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상사분, 전무 이런 분들이 40대 후반인데 딩크족도 많이 있고요. 30대 후반들을 봐도 아예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당연히 결혼한다는 분위기가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1)

> 교육회사라서 약간 보수적이고 오래된 기업들이 많고 이래서. 30대 중후반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거든요. 저는 미혼이지만, 회식을 하면 사담이 다 아이들 얘기거든요. 교구 점검하면서 직원 자녀들을 자주 접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저도 혼자 산지 좀 되다 보니 혼자 더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업계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많이 보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참여자11)

하지만 교육계나 공공기관처럼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업 직종들이 증가한 현대사회에서는 비표준화된 삶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높아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1인 가구 노동자들은 디자이너, 영상제작자, 노무사, 회계사, 프리랜서, 영업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직장은 교사나 공무원처럼 동질적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친밀하게 일하면서 동료의 삶을 관찰하고 관여하는 조직문화가 아니었다. 특히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업계에서 일하는 몇몇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기혼보다는 싱글이 트렌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런 직종에서 일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비혼의 삶을 선택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삶을 자기 삶의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 직장에서 PD들도 비혼자가 많고, 방송작가들도 비혼자 비율이 PD보다 더 높은 편이거든요. 제 나이 또래 여성들도 비혼이 굉장히 많고, 소위 말하는 메인급 이상 작가들은 거의 비혼이 많죠. (참여자10)

> 평균적으로 보면 직장생활하면 대리 달고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영상제작 쪽은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쪽은 하루에 18시간, 20시간씩 촬영하거든요. 한 2시간 자다가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출장 가고 그러면 지금 잠자기도 바쁘고 밥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결혼 생각은 어렵죠. (참여자21)

> 기획 파트 직원들은 결혼들을 하는 편인데, 디자인 파트 직원들 결혼을 아무도 안 했어요. 결혼 얘기를 하는 거는 다 기획 분야 분들이에요. 딱히 결혼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디자

인에 종사하는 동료들이 결국 결혼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참여자11)

Beck(1992: 116)은 후기 근대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일대기를 인식하고 설명할 때 가족사를 중심으로 한 방식(family biography)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커리어를 중심으로 한 방식(labour market biography)을 선택하게 되며, 그것이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1인 가구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위의 면접참여자들이 설명하듯이, 노동시장의 전기를 선택하는 과정이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특성과 산업구조가 유동적이고, 성과와 경쟁을 더 많이 요구할수록 노동자들은 가족의 전기보다 노동시장의 전기를 선호하며 비혼 노동자로 사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포착된 지점은 신자유주의적 조직문화가 혼자 사는 비혼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욱더 엄격한 자기생산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비혼 여성 노동자들은 일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일에 더욱 투신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은연중에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Crompton과 Harris(1998)의 지적처럼,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형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 여성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고, 설령 어렵사리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기혼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 등을 이유로 불이익(motherhood penalty)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차별을 보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기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관념과 달리 자신은 업무에 헌신적이며, 업무성과가 남성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Simpson, 1998).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기혼 노동자처럼 "챙길 가정이 없다"는 이유로 더욱 직장에 헌신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받기도 한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참여자10과 고위공무원으로 20년 넘게 일해온 참여자20은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남성 노동자와 기혼 여성 노동자와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해야 했던 경험을 아래와 같이 술회했다. Beck과 Beck-Gernsheim(2002: 54~55)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과 경쟁을 위한 성별 대립(self-interested gender antagonism)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비혼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은 기혼 여성 노동자들과도 암묵적으로 비교당하면서, 자신을 기혼 여성 노동자들과 차별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노동자라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20대 후반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한 6개월 정도 현업을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픈 여자랑은 아무도 일을 같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제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인가를

> 증명을 하는 데 강박도 생기고 되게 오랜 시간을 썼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든 없든 되게 많은 여성한테는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요구가 있는 거죠. (참여자10)

> 근데 비혼 여성들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자기를 구속하는 가정이든 남편이든 시댁이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직장과 가정의 사이를 경계를 끊어 주는 그런 기제들이 없는 거죠. 기혼 여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야근을 하려고 해도 아기나 남편이 전화하면 가야 되잖아요. 비혼 여성들한테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참여자10)

> 사람들이 보기에 저보다는 가족을 이루고 있는 여성들이 가정에 더 보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너는 일 좀 더해야 마땅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20)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신자유주의적 자기생산에 대한 압력이 직종과 성별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개인화 이론은 기존의 계급, 집단, 신분, 민족 별로 울타리지워지고 표준화되었던 삶의 양식이 무너지면서 개인은 스스로가 본인의 삶의 개척자가 되어가는 현상에 주목한다. 특히,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강제적으로 이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별은 기존의 개인화 이론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 실제 Beck과 Beck-Gernsheim(1995: 195)은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불평등 문제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Mulinari & Sandell(2009: 500)의 지적처럼, 후기 근대성에 관한 이와 같은 이론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기 생애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 즉 교육, 시간, 소득, 정보 등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노동시장에 내재한 성별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사회의 개인화 이론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한 신경아(2012: 15)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었고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왔던 여성들에게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과업은 더 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에게서도 포착된 경향으로, 향후 개인화된 사회의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의 다양성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2)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재생산 메커니즘: 자기재생산(self reproduction)

(1) 생산적 여가시간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자아의 미시적 실천

① 여가시간에서도 생산성을 추구함

혼자 사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외의 여가시간도 생산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는 비노동시간을 가족과 보내야 하는 기혼 노동자와는 달리 이들은 남은 시간을 개인의 자기 계발을 위해 보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실제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여가시간에도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자기 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참여자20은 "직장에 몰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주중에는 회사와 집의 구분 없이 어디에서든 업무적인 고민을 한다고 대답했다. 주말에도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참여자1은 여가시간의 80%를 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 사용했고, 참여자13은 여가시간에 취미생활을 하는 것보다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대기업 인사과에 근무하는 참여자9도 주말에는 경영대학원을 다니며 자신의 업종에 맞는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 챙겨야 할 가족이 없으니까 저에게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몰두하는 게 최고의 가치였었어요. 주중에는 할 수 있는 한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업무적인 고민을 하는 편이고, 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중 5일은 온통 일에만, 주말 이틀은 내 체력을 회복하는 데 이런 식으로 맞춘다고나 할까요? (참여자20)

> 저는 되게 커리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 것 같고. 평상시에 하는 생각에서 커리어 관련 고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고. 7~80%는 되지 않을까. (참여자1)

> 저는 사실 휴일에도 뭔가를 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제 궁극적인 목표가 개업이거든요. 그게 있다 보니, 제 커리어를 위해 뭔가가 좋은 훈련이 뭐가 있을까. (참여자13)

주목할 점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직장과 관련이 되지 않은 일로 여가시간을 보낼 때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쉬는 시간에 가끔 YouTube나 Netflix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말한 연구참여자들은 그럴 때는 자신이 '시간을 죽이는 것' 같다며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참여자12는 "하다못해 게임을 하면 캐릭터 레벨이라도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는데, 아래처럼 많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태도를 보인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쉬면서 뭐라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하다못해 더 쉴 때 게임을 하면 캐릭터 레벨이라도 올려야 할 것 같고, 책이라도 읽어야 하는데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참여자12)

>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 주말 동안에 진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 가끔 부럽거든요. 저는 도저히 못 그러고 있겠어요. 또 뭔가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고. (참여자17)

> 제가 오후 근무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제 저녁 10시~11시 정도가 되는데, 저녁 먹고 나면 보통 새벽 1시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냥 새벽 4시 5시 될 때까지 안 자요. 그냥 잠을 자면 뭔가 계속 시간을 버리는 느낌이고 내 시간이 없었다는 압박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여자14)

Bauman(2000: 72-73)은 전통적 사회제도와 근간이 해체되어 삶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액체 근대 사회에서 개인들이 종착점이 없는 경주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행복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결정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시대정신이 개인에게 일말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계속해서 지시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Bauman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마치 쇼핑 행위와도 같아서 '중독(addiction)'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쇼핑적 행위는 타인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갈망과 두려움을 원동력으로 삼아 인간이 끊임없이 생산적 행위를 하도록 추동한다(Bauman, 2000: 75). 실제 연구참여자 중에 여가시간에 온전히 휴식을 취한다고 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산출물을 만들어내야 보람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육아나 가사에 대한 부담이 적어 온전히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여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본 연구에 참여한 1인 가구 노동자들도 생산을 위해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압박과 불안으로 인해 이상적 의미의 여가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 제가 보통 취미를 하면 저는 항상 뭘 만들거나 결괏값이 눈에 보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손재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어도 이게 나중에 다 정리가 돼서 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또 적어놓고, 이렇게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여자13)

> 레고 블록 같은 거를 조립한다든지. 조립하고 저 혼자 집에 전시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참여자9)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노동하지 않는 여가시간조차 생산성을 의식하는 모습은 개인화의 심화로 인해 커져 버린 자기책임(self responsibility)에 대한 불안과도 맞물려 있다. 정수남(2010)의 지적처럼, 사회적 공포가 사회 전체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

는 감정으로 응축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여가시간도 일을 생각하며 자기 계발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혼자 사는 노동자들은 핵가족 사회의 가족부양에 대한 압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대신에 여가시간을 자기 계발을 위해 더욱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새로운 압력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일터만이 아니라 여가시간에도 끊임없이 자기를 사용하며 소진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사회를 자기 파괴적(self destructive)이라고 표현한 Bauman(2000: 75)의 지적은 본 연구에서도 타당했다.

② 자기힐링이라는 새로운 재생산 활동

자기를 끊임없이 소진하는 자기 파괴적인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한 재생산 활동이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복구하고 복원하는 자기힐링(self healing)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처럼 자기 성과와 자기 계발에 몰두하면서 지치고 피곤해진 자아를 다시 재충전하기 위한 힐링과 정신분석, 심리상담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지친 자아를 회복시키는 심리학 도서가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은 현대사회에서 자기힐링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지를 시사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러 노동자들도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으로 자기힐링에 관련 심리학 서적이나 자아를 다룬 소설을 읽는 일을 꼽았다. 참여자20은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심리학 서적을 탐독하고 있었고, 참여자12는 개인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중서들을 주로 읽는다고 했다.

> 요새는 심리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책들, 심리학 쪽에 가까운 책들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림에서 나타난 심리학, 그런 책들이 있었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알랭 드 보통의 불안도 읽었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관련된 책을 읽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제 스스로의 불안을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여자20)

>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 아세요?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자분께서 받았던 우울증 상담을 하나하나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이제 책들이 우리한테 좀 토닥토닥해주는 느낌들이 더 많지 않나. 또 제가 읽은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는 심리학을 좀 더 가볍게 풀어내서 얘기하는 책인데, 내가 미움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핵심적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책이잖아요. 위로해주는 느낌? (참여자12)

이와 같은 심리학 서적들에 대한 탐독은 자기생산에 지친 사람들에게 힐링과 회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아를 더욱 명확하고 두드러지게 인식하고 의식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장치로도 기능한다. 다시 말해, 심리학 서적들은 노동자들에게 자기중심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자기힐링을 통해 노동자들이 소진된 자아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참여자4는 자기 삶의 전환점을 묻는 말에 은희경의 소설 『새의 선물』을 읽은 때라고 대답했는데, 이때 자아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하게 되었고 지금처럼 독립된 자아로 살아가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 은희경의 '새의 선물'이라는 소설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주인공이 밖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이 저한테 되게 신선했고 그 이후로 좀 저를 보게 된 거 같아요. 사실 그전까지 3차원 밖으로 나와서 저를 바라본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런 책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으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뭔가 다른 것들,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참여자4)

Beck(2000)은 『노동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of Work)』에서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과거의 계급문화가 아닌 자아를 강조하는 자기 문화(self culture)가 노동의 새로운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이때 자기 힐링에 관한 서적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소진되며 무뎌지는 자아를 재충전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 자아가 동력인 노동의 신세계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톱니바퀴로 기능하게 된다. 이처럼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생산 활동은 노동자의 휴식과 다음 세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양육과 돌봄으로 이루어졌다면, 후기 근대의 개인화된 사회에서 재생산 활동은 자기 계발과 자기 힐링을 통한 자아의 재생산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2) 자기재생산을 뒷받침하는 근대 후기의 서비스산업: 가사노동의 부차화

본 연구참여자의 여가생활을 보면, 일견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재생산의 의미가 자아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한편, 전통적인 의미의 재생산 활동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근대 산업사회에서 재생산이란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하기 위한 가사노동이나 양육과 돌봄을 지칭했으며, 이러한 재생산 활동은 주로 가정 내 여성들이 전담했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양육과 돌봄의 의무에서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게 된다. 따라서 남은 시간을 자기 계발과 자기힐링이라는 새로운 재생산 활동에 더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혼자 사는 노동자들이 기존의 전통적 재생산 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만은 아니다. 혼자 사는 노동자들은 생산노동과 함께 기존의 가족구성원들(특히, 여성)이 분담했던 가사노동을 혼자서 전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의 일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임된 가사노동을 오롯이 감당하는 데 상

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가사노동에 관한 버거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재생산 활동을 원가족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인 참여자19은 오랜 시간 자취했지만, 주말마다 어머니에게 빨랫감을 맡기고 있었으며, 40대 후반인 여성 참여자20은 근처에 사는 언니네 집에서 반찬을 받아와서 생활했다. 1인 가구 노동자들의 가사노동이 원가족의 여성에게 외주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Beck과 Beck-Gernsheim(1995: 195)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젠더격차가 점차 희석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자기 일에 몰두하는 능력 있는 개인들, 즉 신자유주의적인 자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여전히 가족 내 여성들의 가사노동이 동원되기도 했다.

> 밥 같은 경우에는 100% 외식을 하는 거고. 빨래는 이게 좀 말하기가 창피한 거긴 한데 빨래는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가져다드리죠. 한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자주 봐요. 자주 뵈면서 빨랫거리를 갖다 드리고 이렇게 얼굴을 뵙고. 그게 이제 제 일상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여자19)

그러나 원가족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략은 가사노동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다. Hochschild(2003: 31)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언급하며 현대사회에서 가사노동이 점차 서비스 업체에 외주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사노동의 외주화는 주로 상류계층에만 발견되는 현상이었는데, 이른바 '마미산업(mommy industry)'이라는 틈새시장이 확대되면서 점점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 플랫폼뿐만 아니라, 청소연구소, 세탁특공대 등과 같이 가사를 대신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가 대거 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마미 산업의 주요 타깃이 바로 혼자 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시장을 '솔로 이코노미'나 '일(1)코노미'로 지칭하며, 큰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각광 받는 중이다(Klinenberg, 2013). 아래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대부분도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가사노동을 외주화하고 있었다. 참여자13의 말처럼, 격무에 지친 상황에다 가사를 분담할 수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은 가족과 같은 지원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처럼 여가시간을 기존의 전통적 재생산 활동이 아닌 자기를 위한 계발과 힐링에 투자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마미산업의 확대와 같은 후기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존재한다.

> 청소도 어플로 사람을 불러보기도 하고, 최근에 LAUNDRY GO라고 빨래도 밖에 내놓으면 해주

> 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모든 서비스가 이제 비대면, 그리고 제가 보지 않을 때, 딱 해놓는 그런 서비스가 많아요. 혼자 사는 친구들이 '이거 되게 좋다 해봐'라고 소개해줬고. 제가 사실 계속 야근하니까 빨랫감이 쌓여서 그래서 맡기게 된 거든요. (참여자13)

> 인테리어는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에서 한 건데, 제가 바빠서 물건을 살 수가 없고. 요새는 거기가 이거저거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많이 썼어요. (참여자1)

(3) 자기돌봄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맥락

1인 가구 노동자들이 가사노동을 외주화하고, 자녀를 위한 돌봄노동에서 자유로운 편이라 해도, 자신을 돌봐야 하는 자기돌봄 노동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 Bauman(1992: 18)은 가정 내 전업주부 등 케어제공자가 줄어든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자기가 스스로를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자기돌봄(self care)이 중요한 생존전략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사는 이들이 자신을 챙기고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많은 참여자가 혼자 살면서는 식사를 제때 챙기는 일조차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식사는 영양소 섭취만이 아니라 소위 '식구'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관계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Fiese와 동료들(2006)은 식사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핵심적 사회 의례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식구가 없는 1인 가구에게 혼자 밥 먹기는 관계적 의미가 아닌,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계적 행위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이 바빠지면 식사를 거르거나 배달주문이나 밀키트로 기계적으로 때우는 일이 빈번했다.

> 바쁠 때는 거의 다 시켜 먹고요. 요즘 워낙 쿠팡이나 배달 앱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배달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죠. (참여자1)

> 혼자 먹는 밥은 굶을 수는 없으니 기계처럼 그냥 배만 채우는 거죠…(참여자17)

혼자 사는 노동자들에게 규칙적인 건강관리 또한 생각보다 어려운 숙제이다. Beck과 Beck-Gernsheim(2002: 140)은 헬스트레이닝,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식단과 같은 건강관리 열풍을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한 자기관리(self management)의 일환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관리를 하려면 시간적·정서적 여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래 참여자17의 말처럼,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청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강관리는 쉽게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 좀 여유가 생기면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먹고 하다가도 회사 일이 바빠서 한달을 야근을 하면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그냥 퇴근하면 현관에서 침실까지 왔다 갔다만 하다가 출근해요. 청소나 빨래도 못 하니까 딱 자는 곳까지 길만 터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운동은 들쑥날쑥하는 거죠. (참여자17)

연구에 참여한 1인 가구 노동자들이 자기돌봄이나 건강관리에 대해 실질적인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시기는 보통 40대 전후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40대 이상의 참여자들은 공통되게 20·30대에는 일에 자신을 투신하다가 40대를 전후를 기점으로 디스크, 위장질환, 편마비, 중증 두통과 같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토로했다. 한병철(2012: 44-45)은 노동행위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노동사회에서는 모두가 저마다의 노동수용소를 달고 다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노동수용소는 개인이 노동에 매몰되게 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신체와 정신을 착취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1인 가구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근을 자주 한다"고 답했던 디자이너 참여자5는 "2~30대에 빡빡하게 일을 했으니 몸이 망가지는 게 당연"하다며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했고, 비슷하게 참여자6도 회사 일에 몰입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신경성 신체 질환을 앓았다. 방송국 PD로 일하는 참여자10은 불규칙적 생활패턴과 과로를 이어가나 30대 후반부터 건강이 꺾이는 경험을 하고 불안감을 느꼈다. 정신적으로 자기를 강화하고 다그치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신체적 한계에 부딪힘으로써 자기돌봄의 위기를 맞닥뜨린 것이다.

> 2~30대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밤을 새워도 상관없고 술 먹고 회사를 출근해도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젠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그동안 빡세게 살았으면 몸이 망가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티가 나는데 저는 무릎이 심하게 아프고 눈도 흐릿해 보이고 그래요. (참여자5)

>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거 때문에 신경성으로 속이 다 뒤집어지고 MRI를 찍을 정도로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그랬어요. (참여자6)

> 저희 업계에서는 유난히 미혼 여성들이 여러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고 생활이 불규칙하고 밤새는 일도 워낙 많다 보니까 항상 건강에 대한 어떤 불안 같은 걸 가지고 사는 거죠. 30대 후반, 꺾이는 시점에 어느 순간에 내 건강이 내 일과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10)

문제는 1인 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건강 상태가 더욱 취약한 편이라는 점이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2주간 유병률은 38.9%, 평균 유병일수는 11.3일로 전체 집단의 유병률(25.0%)과 유병일수(9.9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12.8). 1인 가구가 건강 이상이 많은 경향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혼자 사는 노동자들은 기혼 노동자들보다 자신을 노동의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이를 제어하거나 환기할 동거인이 존재하지도 않기에 건강악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의 출산과 학령기 진입, 결혼과 독립이라는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의 전환점을 거치면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며,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의 생활에 맞춰 자신의 생활양식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Lynn, 1974; Gutmann, 1979; Rosenfeld, 1980).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켜야 하거나 세월의 흐름을 느낄 외부의 조건이나 변화가 거의 없다. 현재 40대인 참여자5의 말처럼, “나이 들어서도 20대에 살았던 방식대로 일하고 자취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세월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의 변화, 즉 신체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부터다.

이처럼 40대 전후로 찾아온 신체적 변화는 연구참여자들이 그동안 일 중심으로 구축했던 생활패턴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많은 참여자가 건강 악화 이후에 자기돌봄을 위한 시간을 늘리고 업무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아예 일을 그만두는 선택을 했다. 실제 참여자4는 15년 이상 해왔던 학원 강의를 접고 개인과외를 시작했고, 참여자6은 회사에서 퇴사하고 1인 기업을 시작했다. 현재 1인 디자인 기업을 운영 중인 참여자7은 과거 회사에서 모두가 퇴근한 시간에 남아서 야근을 하는 등 무리한 업무를 하면서 몸에 마비 증세를 경험했다. 이러한 건강 문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1인 기업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건강이라는 개념이 40대가 가까워지면서 많이 좀 들어왔고. 건강해야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젠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상에서. (참여자5)

> 제가 고등부를 맡았거든요. 거의 쉬는 날이 없었고 주말에도 계속 수업하고 방학 때는 10시간씩 수업하고 그랬는데.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더는 안 되겠다. 일은 적게 하더라도 건강을 먼저 챙겨야겠다고 생각하고 방향을 틀었어요.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과외만 하고 있어요. (참여자4)

> 저는 다른 직원들은 야근을 안 해도 야근을 하고 한 1년 반 정도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몸과 마

> 음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어지러움이랑 편마비가 있고, 안면마비가 오려고 할 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참여자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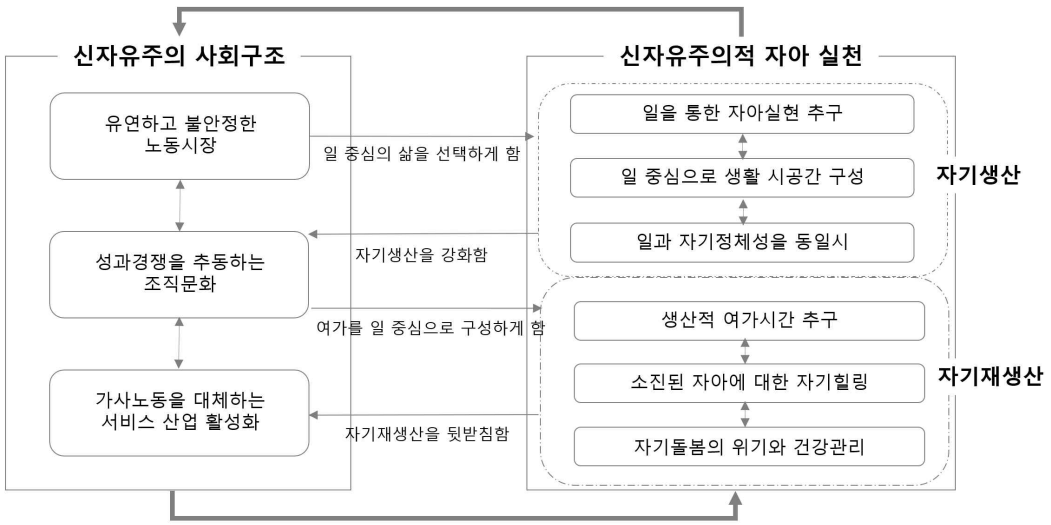
보통 가족이 있는 생계부양자에게 40대는 자녀 교육을 위해 오히려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시기로 인식된다(Rexroat & Shehan, 1987, Horrell & Humphries, 1997). 하지만 자신이 돌보아야 하거나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40대가 되면서 그나마 모든 것을 투자했던 일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이러한 태도 변화를 자본주의적 생산 메커니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로 보긴 어렵다. 위의 참여자5는 이러한 일로부터의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효율적"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Beck-Gernsheim(2002: 140)도 후기 근대 사회에서 트렌드가 된 건강관리 열풍도 결국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선택받으며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40대가 되어 20~30대 청년기를 바쳤던 직장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다른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면접참여자들의 패턴도 공교롭게도 유연화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과 조응하는 측면이 있었다. 과거 평생직장 개념이 존재했을 때는 40대가 직장생활의 전성기이며, 60대에 자녀가 분가하고 나서 정년퇴직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40대 중후반은 명예퇴직과 구조조정에 대비해 다시 취·창업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되곤 한다(금재호, 2011; 김혜온 & 서상숙, 2016). 참여자6가 외국계 기업 이직을 계획하고, 참여자4가 학원강사에서 과외교사로 전업하고, 참여자8이 대기업을 나와 창업을 구상하게 된 개인적 배경에는 건강 신호 이상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40대가 느끼는 퇴직에 대한 압박도 한몫했다. 물론 퇴직에 대한 압박을 혼자 살아가는 노동자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녀의 대학 졸업이나 결혼 시기가 도래하는 60대까지는 안정적 직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 노동자들보다 1인 가구 노동자들이 유연화된 노동시장과 이른 퇴직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1인 가구 노동자들은 자기 자의 삶 전체를 노동에 투신하기 쉽고, 이른 시기에 주된 직장에서 나오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기도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존재들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1인 가구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관찰했을 때, "후기 자본주의 시장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혼자 살며 일하는 무자녀사회를 지향한다"고 본 Beck(1992: 116)의 진단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혼자 사는 노동자들의 일-생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개인화된 사회에서 생

산과 재생산 메커니즘이 어떤 추동력에 의해 작동하며 유지되게 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재생산 활동은 가족(family)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인화가 심화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족의 생계부양과 돌봄의무가 생산-재생산 활동의 동력이 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혼자 사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맥락은 무엇이며, 가족 돌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들의 재생산 활동은 어떤 활동들로 구성되는지를 1인 가구 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제2차 인구변동(SDT) 이론과 후기 근대 사회의 개인화 이론이 지적해온 신자유주의적 사회로의 구조적 변화가 통치성 학파가 주목한 신자유주의적 자아의 실천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되는지에 주목했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1인 가구 노동자들의 자기생산-자기재생산 메커니즘



먼저 불안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 성과경쟁을 강제하는 기업의 조직문화, 마미산업과 같이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는 후기 근대 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통치성 학파의 지적처럼,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가 한 시대의 지배적 통치체계로 지속성을 가지려면 사회적 행위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주체화/종속화(subjectivation)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Foucault, 1978).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1인 가구 비혼 노동자들은 불안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결혼이나 가족 구성을 보류하거나 포기하고 일(노동)을 선택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자아로 거듭나게 되

었다. 일 중심의 삶을 선택한 비혼 노동자들은 생산영역에서의 성공을 통해 자기실현과 자기만족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자신이 생활하는 시공간까지 일 중심으로 재구성하면서, 점차 일과 자기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혼자 사는 노동자들은 노동행위를 단순히 외부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산하고 증명하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신자유주의적 멘탈리티가 형성되어 갔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로 성과경쟁을 통해 노동자의 존재가치를 평가하는 신자유주의적 조직문화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위 연구결과는 개인화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산 활동의 주된 원동력이 되어가는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재생산을 위한 여가시간도 가족계획이나 연애, 타인과 만남을 위해 보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산성과 가치를 높이는 일과 계획에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의 성과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자기계발에 투자하거나, 노동에 몰입하면서 소진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심리서적이나 힐링에 관심을 두었다. 한편, 전통적 재생산 활동에 해당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청소, 요리, 세탁을 원가족이나 서비스업체에 외주화하는 전략을 택하곤 했다. 이들에게 재생산 활동은 다음세대 노동자를 양육하거나 신체적 노동력을 복구하는 돌봄·가사 활동보다는, 노동자 개인의 자아를 재생하고 강화하는 활동에 가까웠다. 이때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자기중심적 재생산 활동은 마미산업처럼 그간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가사·돌봄노동을 대체하는 후기 근대 사회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없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편, 기존의 전통적 가족생애주기가 "20~30대 결혼→40대 자녀양육과 노동활동 전성기→60대에 은퇴"로 이어졌던 것과 달리, 혼자 사는 노동자들은 40대를 전후로 삶의 패턴을 조정하는 경향이 포착되었다.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생애 과업 전환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연구참여자들은 20~30대를 오롯이 노동시장에 투신하다가 40대 전후로 건강문제가 발생하면서, 직장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처럼 40대 1인 가구 노동자들이 기존의 직장과 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이직과 퇴직을 준비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경향은, 공교롭게도 빨라진 퇴직과 이직이 특징인 후기 근대 사회의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와 맞아떨어지면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무리 없이 굴러가게 하는 또 다른 톱니바퀴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자기생산-자기재생산 메커니즘은 〈그림 1〉과 같이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와 이를 내재화한 신자유주의적 자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사이클을 그리며 작동하고 있었다. Foucault(1978: 99)는 한 사회나 시대가 추구하는 통치멘탈리티와 통치기술은 특정한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인구(population), 가족모델(the model of

the family)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작동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는 신자유주의적 자아와 통치성이 후기 근대 자본주의 경제구조, 제2차 인구변동, 그리고 1인 가구와 같이 개인화된 가족모델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본 논문은 제2차 인구변동 이후 주된 가족모델로 부상한 1인 가구 사례를 통해, 가족을 동력으로 해왔던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 메커니즘이 후기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기중심적 생산-재생산 활동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이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한 생산-재생산의 메커니즘은 단지 1인 가구 노동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배타적 특징은 아닐 것이다. 자기성과, 자기관리, 자기책임의 강조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의 주된 가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러나 본 사례연구만으로는 자기중심적 생산-재생산이 1인 가구 노동자에게 두드러진 현상인지, 아니면 후기 근대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공통된 현상인지에 대해 확정하기 어렵다. Brady(2014)도 지적했듯이,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모든 집단에게 일관되고 선형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족이 있는 노동자들은 자기중심적 생산-재생산 활동과 가족 중심의 생산-재생산 활동의 특성이 융합되는 지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부+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 맞벌이 딩크(double income, no kids) 가구, 한부모 가정, 동거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들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후기 산업사회의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1인 가구의 자기중심적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도 젠더, 직종, 소득,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와 격차를 보다 면밀하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도한 시론적 연구이다. 따라서 1인 가구 노동자 내부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천착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분석결과에서도 언급했듯, 신자유주의적 자아의 자기생산과 자기재생산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계층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다. 일례로, 교사나 공무원과 같은 전통적으로 안정된 직종보다는 금융업이나 미디어산업 등 신자유주의적 조직문화가 두드러진 직종의 종사자들이 가족형성보다 일을 우선시하며 자기생산에 몰입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특히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비혼 여성 노동자들은 기혼 여성 노동자나 남성 노동자와 은연중에 비교당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재생산 활동에서도 젠더 간 차이 지점들이 포착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맞벌이 기혼 자녀의 아이들을 조부모(특히, 조모)가 돌보는 돌봄노동의 가족 내 전가 현상이 지적되어 왔다(이은희 외, 2009; 이영숙, 2011; 조계정, 최정숙, 2019). 그러나 본 연구가 살펴본 비혼 노동자들 사례에서도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빨래, 청소, 반찬 만들기 등 가사노동

의 일부를 원가족의 여성이 대신 떠맡게 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후기 근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참여하면서 가사·돌봄노동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가사·돌봄노동의 책임이 가족 내 또 다른 여성에게 다양한 경로로 응축되고 있는 이면의 현실을 드러낸다. 향후 개인화된 사회의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들이 더욱 세밀하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를 개인화라는 문명사적 흐름 속에서 보편성을 가진 집단으로 사유하려는 본 연구의 노력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정책은 제1차 인구변동(FDT)의 특징인 '핵가족화'를 보편적 인구모델로 전제해 왔기 때문에, 1인 가구를 핵가족을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집단이나 취약계층으로 간주해왔다. 이런 이유로 1인 가구 정책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생계비, 일자리 지원이나, 우울 및 고독사 방지 대책에 집중해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제한된 관점은 후기 근대 사회의 제2차 인구변동(SDT)의 특징인 '개인화'의 흐름 속에서 1인 가구가 보편적 인구모델로 부상하게 된 현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저소득 1인 가구에게만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앞서 서론에서도 소개했던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9.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86.2%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서울특별시 & 서울연구원, 2022).

따라서 1인 가구가 후기 근대 사회에서 조응하는 가족형태로 구조적으로 등장하게 된 맥락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정책 분야에서 1인 가구 이면에 존재하는 개인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개인을 문제화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인구전환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인 것이다. 즉, 지금처럼 개인화를 문제시하면서 가족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화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인정하면서 개인 중심의 정책 모델을 재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과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화 흐름을 인정하는 정책을 모색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둘 사안이 있다. 바로 현재 진행되는 개인화의 신자유주의적 속성을 인지하고, 이에 순응하기보다 뛰어넘는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을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호명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생각했을 때, 1인 가구 응답자의 86.2%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던 위의 실태조사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남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일과 생활에 주체적으로 복무하는 듯 보였지만, 이를 순수한 자발성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림 1]과 같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와 자아가 촘촘히 얽힌 그물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신을 생산하고 소진하는 다시 생산하는 활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병철(2012: 45)은 현대사회라는 노동수용소에서 개인은 감독관이자 포로이며,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자기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때 생활세계에서 자기계발과 자기힐링을 독려하는 무수한 강좌, 서적, 광고, 영상들은 노동수용소의 개인들에게 채찍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신자유주의적 생산과 재생산 활동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을 상상하거나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화의 흐름이 반드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에 복무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를 파편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Giddens(1992)의 주장처럼, 개인을 종속적 관계에서 해방시키고, 개인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직문화, 서비스 산업에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거시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로 향하도록 채찍질하는 미시적 통치기술들에 대항해, 개인들을 연결시키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생활세계의 작은 실험들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택, 강정구, 마강래(2016).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미혼 1인 가구와 기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3-23.

금재호(2011).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노동리뷰. *11*. 61-75.

김석호, 변미리, 정병은, 구서정(2018). **인구특성별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김연옥(2016). 1인 가구 시대의 도래: 특성과 생활실태. 한국가족복지학. *52*. 139-166.

김인숙(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집문당: 서울.

김종훈(2018).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8(1)*. 61-74.

김태환(역) (2012). **피로사회**. 한병철. *Mudigkeitsgesellschaft*. (2010). 서울: 문학과지성사.

김형균(2019).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11*. 5-15.

김혜온, 서상숙(2016). 30대와 40대 남성의 직장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4)*. 1-22.

김혜정(2015). 비혼 여성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2)*. 7-40.

노혜진(2018).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71-102.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2022).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서울연구원.

송유진(2007).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 1인 가구의 특성: 지역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1)*. 147-160.

신경아(2012). 서구사회 개인화 논의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12(1)*. 1-33.

유현정, 이아름, 송유진, 안혜리(2017).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활용한 1인 가구의 소비생활 특성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48(2)*. 277-301.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이영숙(2011). 조모의 손자녀 돌봄 의도에 미치는 돌봄 경험의 영향: 동거여부에 따른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91-100.

이은희, 하주영, 이정란, 황은희(2009). 맞벌이 자녀를 둔 조모의 손자(녀) 돌봄 경험. 질적연구. *10(1)*. 1-13.

정경희(2013). 고령 1인 가구 거주자의 생활현황. 보건복지 Issue & Focus. *181*. 1-8.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김혜영, 진미정(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 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수남(2010). 공포, 개인화 그리고 축소된 주체: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일상성.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33(4)*. 329-357.

정순둘, 임효연(2010). 노인 고독사의 현황과 과제: 일본과 한국의 비교. 노인 고독사 막을 수 없나 토론회 자료. 21-47.

정순희, 임은정(2014).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1-19.

조계정, 최정숙(2019). 조부와 조모가 함께하는 손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50(1)*. 263-308.

하지경, 이성림(2017). 1인 가구의 건강관련 습관적 소비, 생활시간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비 1인 가구와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2)*. 141-152.

"1인 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10.6.).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보도자료. (2021.12.8.).

Ashforth, B. E., Kreiner, G. E. & Fugate, M. (2000). All in a day's work: Boundaries and micro role transi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3)*. 472-491.

Barret, M. & McIntosh, M. (1980). The 'family wage': Some problems for socialists and feminists. Capital & Class. *11*. 51-72.

Bauman, Z. (1992). Survival as a social construct. Theory, Culture and Society. *9(1)*. 1-36.

_____. (1998).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_____. (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_____. (2001). *The individualized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_____. (2003). *Liquid love: On the frailty of human bonds*. Cambridge: Polity Press.

_____. (2005). *Liquid life*. Cambridge: Polity Press.

Beck, U. & Beck-Gernsheim, E. (1995). *The normal chaos of love*. Cambridge: Polity Press.

_____.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New York: Sage Publications.

_____. (2000). *The brave new world of work*. Cambridge: Polity Press.

_____. (2003). Living your own life in a runaway world: individualization, globalization and politics. In R. Robertson & K. E. White(eds). *Globalization: Culture and identity*. London, New York: Routledge.

Beneria, L. (1979). Reproduction, production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ur.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 203-225.

Bonoli, G. (2007). Time matters: Postindustrialization,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state adaptation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5)*. 495-520.

Boston, S. (1980). *Women workers and the trade union movement*. Washington D.C: Davis-Poynter.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Brady, M. (2014). Ethnographies of neoliberal governmentalities: From the neoliberal apparatus to neoliberalism and governmental assemblages. Foucault Studies. *(18)*. 11-33.

Burchell, G., Gordon, C. & Miller, P. (1991).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uttimer, A. (1980). Home, reach and the sense of place. In A. Buttimer & D. Seamon(eds). *The Human experience of space and place*. London: Croom Helm.

Chang, K. S. (2014).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Compressed modernity and obfuscated family crisis in East Asia. In E. Ochiai & L. A. Hosoya(eds).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public in Asian modernity*. Kyoto: Kyoto University Press.

Chenail, R. J. (2010). Getting specific about qualitative research generalizability. Journal of Ethnographic & Qualitative Research. *5(1)*. 1-11.

Cho, J. H. (2009). Neoliberal governmentality at work: Post-IMF Korean society and the construction of neoliberal women. Korean Journal. *49(3)*. 15-43.

Coontz, S. (1992). *The way we never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New York: Basic Books.

Crompton, R. & Harris, F. (1998). Explaining women's employment patterns: Orientations to work revisited.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1)*. 118-136.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sser, I. (2005). Why work? Comparative studies on welfare regimes and individuals' work orient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ockholm University.

Eurostat. (2019). Number of households by household composition, number of children and working status within households(1000). www.appsso.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

Fiese, B. H., Kimberly, P. F. & Spagnola, M. (2006). Routine and ritual elements in family mealtimes: Contexts for child well-being and family identity.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11*. 67-89.

Fleckenstein, T. (2011). The politics of ideas in welfare state transformation: Christian democracy and the reform of family policy in Germany. Social Politics. *18(4)*. 543-571.

Foucault, M. (1978). Governmentality. In G. Burchell, C. Gordon & P. Miller(eds). (1991).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raser, N. (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591-618.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Press.

_____.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Cambridge: Polity Press.

Golden, A. G. (2001). Modernity and the communicative management of multiple roles: The case of the worker-parent. The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4)*. 233-264.

Guichard, J. (2009). Self-construct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51-258.

Gutmann, D. (1979). Individual adaptation in the middle years: Developmental issues in the masculine mid-life crisis. In J. Hendricks & C. D. Hendricks(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Chicago: Rand McNally.

Hobson, B. (2002). *Making men into fathers: Men, masculinities and the social politics of fatherh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chschild, A. R. (2003). *The commercialization of intimate life: Notes from home and work*.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onneth, A. (2004). Organized self-realization: Some paradoxes of individualiz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7(4)*. 463-478.

Horrell, S. & Humphries, J. (1997). The origins and expansion of the male breadwinner family: The case of nineteenth-century Britain.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42(S5)*. 25-64.

Inui, A. (2005). Why freeter and NEET are misunderstood: Recognizing the new precarious conditions of Japanese youth. Social Work & Society. *3(2)*. 244-251.

Johnston, D. D. & Swanson, D. H. (2007). Cognitive acrobatics in the construction of worker–mother identity. Sex Roles. *57(5)*. 447-459.

Kim, J. & Yoo, S. (2021). Perceived health problems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housing poverty living in Seoul, South Korea: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3)*. 1067.

Klinenberg, E. (2013). *Going solo: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London: Penguin Books.

Kohli, M. (2007).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life course: Looking back to look ahead.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4(3-4)*. 253-271.

Land, H. (1980). The family wage. Feminist Review. *6*. 55-77.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_____. (201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n overview of its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1(51)*. 18112-18115.

Lewis, J.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 159-173.

Lynn, D. (1974). *The father: His role in child development*. Monterey: Brooks/Cole.

McKenna, E. P. (1997). *When work doesn't work anymore: Women, work and identity*. New York: Delacorte Press.

Mitchell, K. (2006).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the European Union: Education, training, and technologies of citizenship.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4(3)*. 389-407.

Mulinari, D. & Sandell, K. (2009). A feminist re-reading of theories of late modernity: Beck, Giddens and the location of gender. Critical Sociology. *35(4)*. 493-507.

Osborne, D. & Gaebler, T. (1992).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government*. New York: Addison-Wesley.

Pfau-Effinger, B. (2004). Socio-historical paths of the male breadwinner model: An explanation of cross-national differenc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5(3)*. 377-399.

Polit, D. F. & Beck, C. T. (2010). Generalization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yths and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7(11)*. 1451-1458.

Rexroat, C. & Shehan, C. (1987). The family life cycle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4)*. 737-750.

Rimlinger, G. V. (1971).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New York, London, Sydney, Toronto: John Wiley & Sons.

Ritchie, J., Lewis, J. & Elam, G. (2003). Designing and selecting sample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77-108.

Rose, N. (1996). The death of the social? Re-figuring the territory of gover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25(3)*. 327-356.

_____. (1998). *Inventing our selves: Psychology, power, and personh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99). *Powers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senfeld, R. (1980). Race and sex differences in career dynamic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583-609.

Seamon, D. (2015). *A geography of the lifeworld*. London: Routledge.

Seccombe, W. (1974). The housewife and her labour under capitalism. New Left Review. *83*. 3-24.

_____. (1986). Patriarchy stabilized: The construction of the male breadwinner wage norm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Social History. *11(1)*. 53-76.

Sennett, R. (1998). *The corrosion of character: The personal consequences of work in the new capitalism*.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Simpson, R. (1998). Presenteeism, power and organisational change: Long hours as a career barrier and the impact on the lives of women managers.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9*. 37-50.

Snell, K. D. M. (2017). The rise of living alone and loneliness in history. Social History. *43(1)*. 2-28.

Standing, G. (1997). Globalization, labour flexibility and insecurity: The era of market regulation.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1)*. 7-37.

van de Kaa, D.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Reference Bureau. *42(1)*. 1-59.

van Kersbergen, C. J. (1999). *Contemporary christian democracy and the demise of the politics of med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cquant, L. (2009). *The neoliberal governmentality of social insecurity*.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Weber, M. (1978).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Parsons, T. Trans). New York: Charles Scribners's Son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05).

Wilkinson, K., Tomlinson, J. & Gardiner, J. (2017). Exploring the work-life challenges and dilemmas faced by managers and professionals who live alone.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1(4)*. 640-656.

Abstract

The Work-Life Experiences of Workers Living Alone: Production-Reproduction Mechanism in an Individualised Society

Based on the work-life experiences of single workers living alon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lue as to what drives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mechanism to operate and continue in an individualised society. In a modern capitalist society, production-reproduction activities have been centred around family. However, in a post-modern capitalist society where individualisation intensified, it is difficult for a family to be the essential motivation for production-reproduction activities. Therefor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21 unmarried workers living alone, this study aims to examine in detail the contexts in which single household workers continue to work in the labour market and what activities are composed of their non-work time.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activities of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which families had driven, are being reorganised into activities to produce and reproduce 'the self' in the late modern capitalist society. For solo workers, labour is recognised as an activity to prove and actualise their self-identities beyond the activity of producing goods or services to support the livelihood of families. The meaning of reproduction is also changing to regenerating self-identities of individual workers through self-development and self-healing, rather than caring for the next generation or restoring physical labour power. This study conceptualised the production-reproduction mechanism of an individualised post-modern capitalist society as 'self-production' and 'self-reproduction' and briefly suggested how future social policies could respond to these changes.

Keywords: single person household, neoliberalism, labour, family, governmentality

◈ 2022. 10. 27. 접수 / 2022. 11. 21. 1차수정 / 2022. 12. 22. 게재확정

*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bethany@snu.ac.kr)

** Co-Author, Mast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pjoon94@snu.ac.kr)

*** Co-Author, Mast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gksml1205@gmail.com)